

신규 저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디스코드(DISCORD)와 저작권 침해 -

온라인보호부 | 김찬솔 선임

2021. 5.



디스코드(DISCORD)와 저작권 침해

가. 디스코드(Discord) 현황

1) 디스코드(Discord)란?

◆◆◆ [그림] App Store에서 제공되는 디스코드 이미지



2020년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뽑은 최고의 소셜 미디어는 익히 알려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아닌 디스코드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앱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플랫폼이다. 2015년 출시하여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의 성장을 동력으로 10대와 20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2019년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초기 디스코드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유사한 형태로 단순히 음성 채팅과 일반 채팅 기능만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게이머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고 빠른 음성 채팅, 오버레이를 위주로 한 직관적이고 게임 친화적인 기능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차별화를 이루어 냈다. 또한, 다양한 디스코드 봇을 지원하여 게임 프로필 등을 제공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는 등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오버레이 업데이트 후에는 화상 통화와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만의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소셜 미디어와 카페, 화상회의까지 가능한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인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디스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디스코드(Discord) 관련 이슈

디스코드는 사용자들이 개인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사진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버 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게임, 커뮤니티, 애니, 만화,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과 태그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는 총 4,323개(21.04.05 기준)의 서버가 개설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서버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가입 절차를 두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서버는 폐쇄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악용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뽑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흘렀으며 범죄 관련자들의 처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디스코드를 통해 여전히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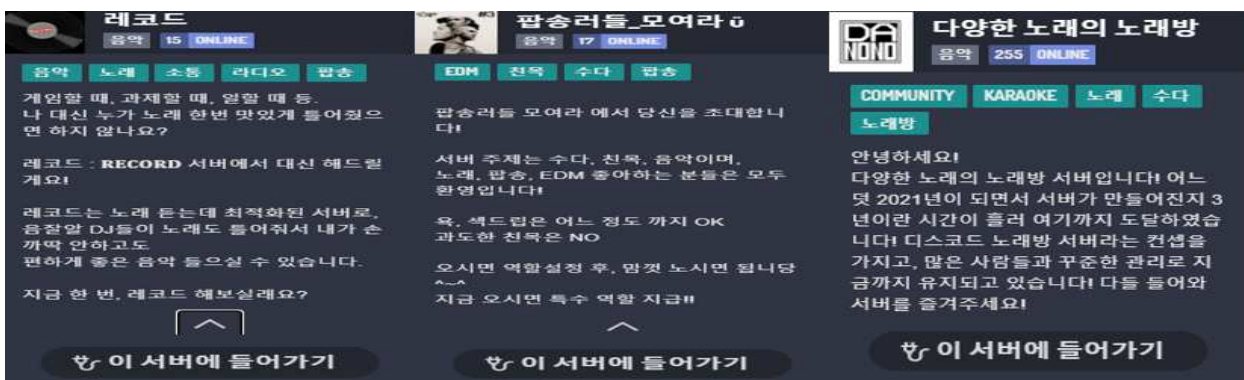
◆◆◆ [그림] 디스코드의 문제점을 다룬 JTBC 뉴스 영상¹⁾



3) 디스코드(Discord)와 저작권 침해

그렇다면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버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커뮤니티 서버 특성상 이용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음악 봇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불법복제된 파일을 전송한다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서버를 확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았다. 확인 당시 디스코드에는 8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였고, 98개의 인기 태그가 사이트 메인화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중 음악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았더니 총 58개의 커뮤니티 서버가 확인됐으며, 58개 서버 중 일부는 국내 음악 외에도 팝을 틀어주거나 곡을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등 다양한 음악 커뮤니티 서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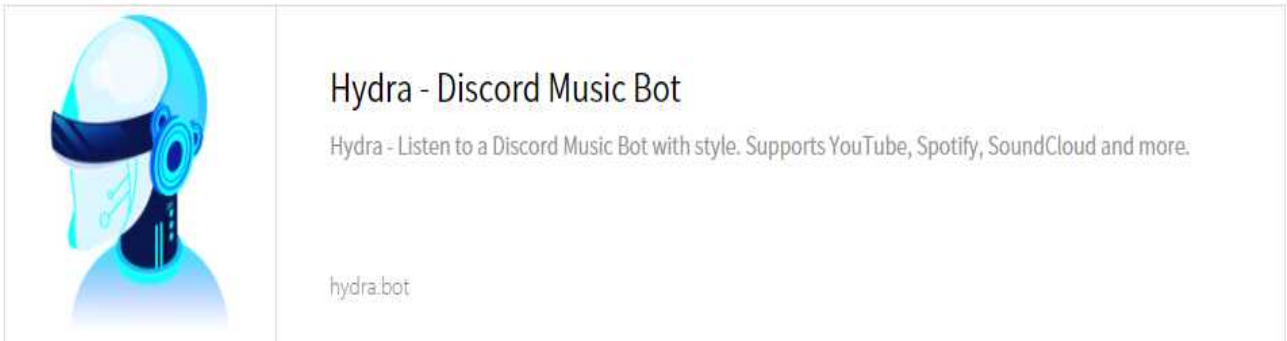
◆◆◆ [그림] 커뮤니티 서버로 등록된 음악 서버



1)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FDLk3yJX-E>

또한, 디스코드에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팅을 도와주거나, 서버를 관리한다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 다양한 디스코드 봇이 존재한다. 디스코드 봇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로봇을 뜻하는데 디스코드 봇 중 음악을 틀어주는 봇은 그리비와 히드라 봇이 대중화되어있다. 이러한 음악 봇은 다양한 명령어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영상에 음만 가져와 재생해 주거나 개인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권한 없이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그림] 디스코드 노래봇 중 하나인 히드라 봇



다음은 8개 카테고리 중 영화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았다. 총 23개의 커뮤니티 서버가 확인되었고, 이중 무료 영화 다시 보기 서버, 개인 NAS를 운영하며 영화를 공유하는 서버 등도 확인되었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예도 확인되었다. 커뮤니티 가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때문에 내부적인 운영 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커뮤니티 소개 글을 보면 개인 NAS를 이용한 파일 내려받기, 음악 실시간 듣기 등 소개 글 만으로도 커뮤니티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그림] 커뮤니티 서버로 등록된 영화 서버



나. 시사점

디스코드는 사람들과 게임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 프로그램이자 다양한 커뮤니티 서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커뮤니티 서버의 공유 기능을 악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일 때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 중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 간에 강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소수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인적 유대관계가 없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디스코드에서 음악 또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재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본인 스스로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타인의 콘텐츠, 이미지,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추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다수 사람과 공유, 참여를 기본으로 하므로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디스코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 미디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